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0 젊은이들의
전통춤 연구발표

무용감독: 이 노 연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살풀이춤 (오수연)

호남검무 (박창희)

태평무 (이경림)

설장고춤 (김진영)



진주검무 (정은정, 이현정)

살풀이춤 (허경미)

승무 (김주연)

2000. 1. 20(목) 19:30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PUSAN CULTURAL CENTER SMALL HALL

진행: 홍기태, 이정식 / 소품: 안정숙 / 무대감독: 권택삼 / 조명: 신상준 / 음향: 전인수 / 기획: 박소윤

■ 입장권 / 균일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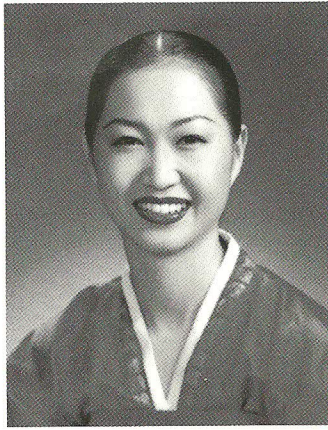
■ 공연문의 / 시립예술단 홍보부 ☎ 607-6070

■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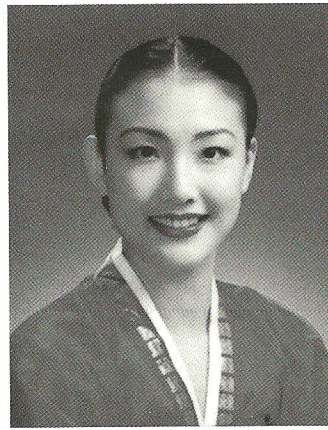
남포동/문우당서점(버스정류소앞 245-3843) 서면/부산음악사(서면학원옆 803-1527) 영광도서(복개천 816-9500)
동보서적(태화쇼핑옆 803-8000) 동래/현인소리방(부산대앞 518-0686) 영창피아노(수안로타리 552-3719) 대연동/
면학도서(경성대앞 623-9404) 남천동/대일통상(대남로타리 628-4437) 해운대/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입구 752-0100)



살풀이춤 오수연

살풀이춤은 원래는 운명의 흥살을 피하도록 하는 살풀이굿, 또는 그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무당이 추던 특유한 巫舞를 일컬었으나 후에 예인들에 의해 그들의 특유한 삶의 정서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춤으로 승무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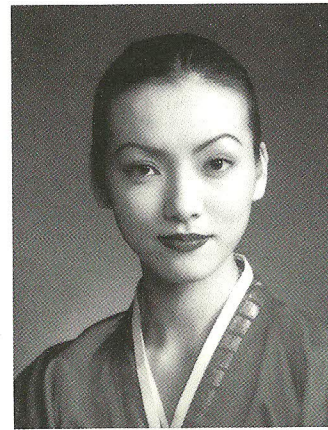
본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이매방류 살풀이춤으로 형식면에서는 우아미, 내용면에서는 비장미가 강한 이 춤을 정중동의 유연한 춤사위를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호남검무 박창희

황창랑무라고 불리는 이 춤은 신라 소년 황창랑이 적국인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인 후 죽음을 당한 뒤 신라인들이 이를 애석히 여겨 그의 얼굴을 닮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춘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조에 이르러 궁중무용으로 되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무구화 된 칼을 사용하여 평화롭고 유연한 동작으로 연결된다.

본 공연은 우봉 이매방 선생님의 호남검무를 바탕으로 군무의 형식을 1인무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칼놀림의 섬세함과 동작의 정교함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 보았다.



태평무 이경림

태평무는 경기도 도당곳에서 행하여 진 무악과 무무를 故 한성준 선생이 발취하여 재구성한 춤이다. 왕이나 왕비의 화려한 궁중복식을 갖춰 입음으로써 존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내는 한편 무속적인 장단을 사용하여 서민적이며 민속적 분위기의 춤사위를 춤으로써 서로 대비되어 독특한 멋을 지닌다. 오늘의 춤은 한성준 선생의 계보를 잇는 한영숙류의 태평무가 지니는 섬세한 발디딤 기교와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손놀림을 중심으로 표현해 보았다.



설장고춤 김진영 특별출연: 설영성(남산놀이마당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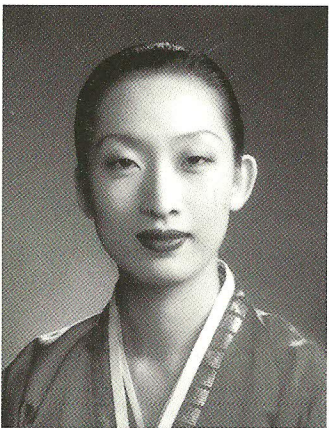
장고는 우리 민족 고유의 타악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악기로서 궁편과 채편의 음율이 마치 음과 양같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음의 조화를 이루는 악기이다. 설장고춤은 이 장고를 치며 춤을 추는 농악의 장고춤에서 발전된 춤으로써 본 공연에서는 이매방류 장고춤이 가지는 춤선의 움직임과 빠른 장단의 장고 가락에 맞추어 가볍게 발을 도약하며 추는 춤사위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의경통춤연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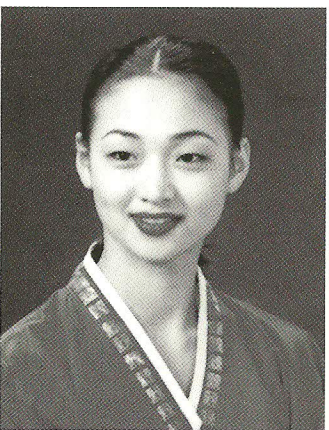


진주검무 정은경 / 이현경

궁중무용 계통의 하나로 진주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춤으로 옛 문헌에 보면 신라 소년 황창랑이 나라를 위하여 적국인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이고 그들에게 잡혀 죽었으므로 그 후 신라인들이 이를 애석히 여겨 그 얼굴과 같은 가면을 쓰고 춤을 추어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준데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이 춤은 그 연출 방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연희하는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무용이다. 진주검무는 다른 검무와는 달리 도드리 장단으로 시작, 타령곡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징적 춤사위는 주로 옆사위, 뒷사위로 대범하고 활달한 기상이 있으며 특히 독특한 무태를 보이는 손놀림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살풀이춤 허경미 특별출연: 악/정영만

(중요무형문화재 182-라호 남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

소리/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 춤은 원래 남도정무의 계통으로서 종교적인 기원인 굿에서 파생된 것으로 굿을 마치고 난 후 뒷풀이로서 경기도에서는 굿거리 장단에 전라도에서는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무당이 추던 즉흥무의 특유한 巫舞를 일컬었으나 오늘날에는 명주수건을 들고 추는 춤으로 전승되어 온 정중동의 묘미가 잘 살아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묶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며 살아서 풀지 못한 망자의 한을 풀어 준다는 고틀이춤을 살풀이춤과 연결시켜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굿판에서 추어졌던 살풀이춤의 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승무 김주연

한국무용의 정수로써 멋의 절정을 자아내는 승무는 한의 비탈을 넘어서 장삼의 선이 가지는 기개로써 자유와 영원을 희원하는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본 승무는 호남형 '이매방류 승무'로 발디딤새와 호흡법, 장삼 자락이 펼쳐는 선의 움직임의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승무의 내면적 '멋'의 자락에 다가서고자 한다.